

한국 현대시의 아이러니와 시적 내면의 심층화에 관한 연구*

김 지 연**

차 례

- | | |
|--|--|
| I. 서론 - 왜 아이러니인가? | III. 자아정체성의 회복과 세계와의 대항 |
| II.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무의식의 탐색 | 1. <나비와 廣場> - 焦土의 醇化를 갈망하는 나비의 비상 |
| 1. <碧毛의 猫> - 靈肉의 상호 이탈과 합일예의 갈등 | 2. <巨大한 뿌리> - 사랑의 힘으로 '거대한 뿌리'를 박는 정신의 가버움 |
| 2. <烏瞰圖 - 詩第十五號> - 현실과 꿈의 공격적 해체와 그 파괴적 치유 | IV. 결론 |

I. 서론 - 왜 아이러니인가?

시적 표현은 그 상상력으로 시의 내면에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심층을 갖게 한다. 그 심층이 아이러니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굴절되는 과정을 거친 것일 경우 그 시적 진실은 더욱 극화된 감동을 수반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시에서 시정신의 심도가 깊고 높은 품격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시편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1-A00303).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들 중에는 아이러니가 작용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아이러니와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시작품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해보는 텍스트 중심의 시론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시도는 아이러니 방법론에 의한 그간의 연구들이 기존의 시론에 제시되어 있는 아이러니의 원리와 종류 등에 입각하여 표층적인 해석으로 일관하거나, 수사적 차원에서 수필적 평설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¹⁾

I. A. 리처즈는 아이러니를 “상반되는 충동들의 균형”으로 규정하고, 모든 훌륭한 시는 구조적으로 아이러니를 내포한다고 정의하면서 아이러니를 20세기 신비평에서 텍스트 판단의 주요 개념이라고 제시하였다.²⁾ 아이러니는 단순한 시의 기법이라기보다는 현대의 불안한 정신 풍토 속에서 시의 존재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 정신의 해체와 함께 현재 중요한 정신적 조류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고, 그 구조적 특징의 면에서 아이러니 방법론은 현대시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된다. 아이러니는 그 자체에 모순 충돌하는 요소를 모두 수용하여 대립하는 정신적 가치를 통찰하는 힘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는 내용과 형식, 의식과 표현, 주제와 기법을 서로 조응하고 통합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N. 프라이는 아이러니를 세속적 양식³⁾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아이러니의 원리·개념·종류,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한 작품 분석 등에 관한 시론은 다음 자료들이 대표적이다. : A. Preminger and T. V. F. Brogan,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C. Brooks, *The Well Wrought Urn*, London : Dennis Dobson, 1968 / C. Brooks and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 C. B. Wheeler, *The Design of Poetry*, New York : W. W. Norton, 1966 / D. C. Muecke, *Irony*, London : Methuen, 1970 / I. 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55 /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 N.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W. C. Booth, *A Rhetoric of Irony*, Chicago University Press, 1974 /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 김용직, 『현대시원론』, 학연사, 1988 / 김준오, 『시론』, 이우, 1988 / 김학동 외, 『현대시론』, 새문사, 1997 /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79 / 정한모,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85 등.

2) I. A. Richards, 앞의 책, pp.249-251.

3) N. Frye, *Anatomy of Criticism*,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2, 61쪽.

아이러니를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시적 자아가 대상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세계관이자 시적 방법론으로 볼 것이다. 아이러니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D. C. 뮤크가 아이러니의 목적을 인생의 복잡성과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의 표현⁴⁾이라고 논평한 것이 본 연구에 적절한 지침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이러니를 ‘인생의 복잡성과 가치의 상대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 충돌, 갈등, 분열의 양상을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긴장의 방법론’으로 정의 내려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적 자아가 체험하는 의식의 내면이 심층화되는 국면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거점인 자아정체성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대표하는 이론 배경은 사르트르이겠지만 데카르트의 실존 해명,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식, 까뮈의 부조리 사상 등 실존주의의 행동성이 본 연구의 직접적 모티프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죄의식 또는 심리적 억압을 살펴보거나 이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논의에서 관건이 되는 자아정체성은 현대의 삶 속에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실존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성찰적 인식⁶⁾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확인할 때 인간은 자연적 존재로부터 문화적 존재로 승격된다.⁷⁾ 인간이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위기의식과 상실한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구조와 실상을 드러내고 통합의 지평을 이루려는 문학적 실천과 맞닿는 주요 쟁점이다. 자아정체성의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출발하여 시적 자아의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인식하고 문제를 자각하고 부딪치며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지에까지 다양하게 나타

4) D. C. Muecke, *Irony*, 『아이러니』(문상득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44쪽.

5) 자아정체성(self-identity)에서 정체성(identity)이란 개념은 ‘확인하다(identify)’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확인(identification)’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정체성, 동일성, 본성, 주체성 등의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용어의 원어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정체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6) A.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현대성과 자아정체성』(권기돈 역), 새물결, 1997, 48쪽 참조.

7) 신오현, 『자아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1987, 123-145쪽 참조.

난다. 이러한 자아의 위기의식과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는 아이러니라는 방법론에 의해 더욱 그 시적 내면의 심층을 갖게 한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자유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 자유의 문제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분열을 통한 자기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자유는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회복의 과정에 따라다니는 소외의 문제는 자기 극복의 필연적인 계기가 된다. “소외는 인간 실존의 핵심적인 모습이며……소외 없는 일생은 거의 살 보람이 없는 것이다.”⁸⁾라는 언급은 인생에 끊임없이 반기를 드는 소외의 문제와 이를 통찰할 수 있게 하는 아이러니가 정신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아이러니에 의해 분석할 수 있는 작품은 수없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무의식의 탐색, 자아정체성의 회복과 세계와의 대항이라는 전제 아래 표본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론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자아정체성의 관점에서 무의식이라는 정신세계와 불연속적 현실 상황과의 대항이라는 양극단을 살펴보는 것은 아이러니의 양상을 가장 폭넓게 살펴본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⁹⁾

문학작품의 형상은 독자의 적극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 가치를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문학작품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이 현재화 과정은 아이러니 방법론에 의하여 그 세계를 더욱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이때 아이러니의 시정신은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⁰⁾ 현대인의 비극적 초상이 담겨 있는 시편들을 선별하여 온갖 고난을 무릅쓴 자아의 성찰과 존재의 고뇌를 아이러니로 풀어내려는 본 연구가 문학적 리얼리티를 탐구하는 동시에 한국의 시를 정신사적으로 해명해보는 작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8) Richard Schacht, *Alienation*,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Books, 1971, p. x l v i .

9)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회복, 무의식의 탐색과 세계와의 대항이라는 문제가 아이러니에 의하여 심층화되는 국면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시적 내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10) Jonathan Culler, “Rhetoric, Poetics, Poetry”, *Literar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81-82 참조.

II. 자아정체성의 상실과 무의식의 탐색

1. <碧毛의 猫> - 靈肉의 상호 이탈과 합일에서의 갈등

황석우의 <碧毛의 猫>는 사막의 한가운데 누워 낮잠을 청하는 화자에게 푸른 털의 고양이가 사랑으로 유혹하는 다소 이질적인 소재를 통하여 부정적인 현실 인식과 존재론적 고뇌의 갈등이 시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어느날내靈魂의
 午睡場(낮잠터)되는
 沙漠의우, 수풀그늘로서
 碧毛(파란털)의
 고양이, 내고적한
 마음을바라다보면서
 (이애, 네의
 원갓懊惱, 運命을
 나의熱泉(끓는샘)갓흔
 愛에 살적삶아주마,
 만일, 네마음이
 우리들의 世界의
 太陽이되기만하면,
 基督이되기만하면).

- <碧毛의 猫> 전문¹¹⁾

황석우는 1920년대 시단에서 퇴폐적 상징주의¹²⁾ 또는 허무적 상징주의¹³⁾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碧毛의 猫>는 실제와 관념의 이원론을 극복하여 全一性을 이루고자 하는 관념 상징¹⁴⁾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황석우의 시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사조적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이른바 ‘朦朧體是非’와 관련하여 3·1운동의

11) 『폐허』~창간호, 1920.7.

12) 김재홍·정한모, 『한국 대표시 평설』, 문학세계사, 1988 /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13) 조지훈, 『한국현대시사의 관점』, 『조지훈전집3』, 일지사, 1973.

14) 강우식, 『한국상징주의시연구』, 문화생활사, 1987, 72쪽.

좌절에 의한 암담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우울하고 몽롱한 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碧毛의 猫>는 1920년대의 시에서 보기 드물게 화자와 고양이의 대화라는 개성적인 호흡물에 의거하여 일탈된 영혼과 육체의 갈등이 교묘하게 형상화된 작품이다. 아이러니는 인간의 내면 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대립되는 두 요소의 상반성을 일정한 정서적 거리를 두고 비평적으로 인식한다.¹⁵⁾ 이 시는 아이러니에 의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야만 정체성을 상실한 영혼과 육체의 분열 양상과 참다운 합일을 모색하는 시적 자아의 갈망을 꿰뚫어볼 수 있게 된다.

이 시에서 화자인 '나'의 영혼은 사변의 메마른 사막 속에서 빈사 상태에 있고, '碧毛의 고양이'¹⁶⁾는 끊어 넘치는 사랑의 숨결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은 털의 고양이는 어둠과 죽음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푸른 털의 고양이는 매우 낮은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황석우가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碧毛의 猫>가 보들레르의 <고양이> 시편의 발상법과 같다¹⁷⁾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표면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碧毛의 猫>의 핵심적 상징은 '푸른 털'의 고양이이다. 특히 사막에서의 푸른색은 생사의 구별을 가리키는 생명력, 풍요 등을 상징한다.¹⁸⁾ 이 시에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熱泉(끓는샘)갓흔 愛' 속에 오뇌와 운명을 잠기게 하는 관능의 상징으로 풀이되어 왔으나, '푸른 털'의 고양이는 영원히 푸르고 싶은 강력한 생명력과 욕망을 표상한다.

<碧毛의 猫>는 낮잠을 자는 곳이 적당히 편안하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이 시에서 낮잠터로 등장하는 사막

15) C. B. Wheeler, 앞의 책, pp.94-96 참조 / D. C. Muecke, 앞의 책, 44-80쪽 참조.

16)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함, 여성의 정조, 죄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고양이는 전통적으로 음성의 동물로 표독하고 앙칼스러운 여인의 기질로 그려지기도 하고, 靈物, 충의의 전범, 악연 등으로 상징화되어 왔다. :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1, p.39 참조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4, 57-62쪽 참조.

17) 김학동, 『한국 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107쪽.

1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609쪽 참조.

의 설정은 심신이 고달픈 화자의 영혼이 평안하게 설 수 없는 곳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낮잠은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수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드나들며 교접하는 상징적 공간이자 시간이다.

오뇌와 운명의 고통으로 가득차 있는 시적 자아에게 고양이는 수풀 그늘인 오아시스에서 화자의 고적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한다. ‘나’의 오뇌와 운명을 시원한 오아시스에서 모두 잊게 해주고 사랑으로 가득찬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신 조건을 제시한다. ‘우리들의 세계’의 태양과 기독교와 같은 존재가 되어 달라는 제안이 그것이다. 고양이가 ‘나’를 ‘이애’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달콤하게 유혹한다. ‘나’는 그 뜨거운 육체의 향연에 뛰어들고 싶다. 그런데 ‘태양’과 ‘기독교’가 되어 달라는 고양이의 조건은 시적 자아를 갈등하게 한다. 고양어로 상징된 육체적 정열은 인간 생명의 근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육체적 열애는 인간의 생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한다.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여 있는 자에게 이러한 육체적 정열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고뇌로 말라가는 자를 싱싱하게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행동 없는 고뇌에 차 있고, 고양이는 뜨거운 정열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 영혼과 육체가 교감하면서 푸른 생명력으로 용틀임할 수 있을 것인가. <碧毛의 猫>에서 우리는 영혼만의 일방적인 자기 방기도 아니고, 육체의 욕정만도 아닌 영혼과 육체의 건강하고 밝은 교감과 사랑을 꿈꾸는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영혼의 힘은 자신을 곳곳하게 지켜주는 지주와 같지만 자칫 그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쉽고, 육체적 정열은 건강한 생명력을 주지만 충동적인 애욕에 함몰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이 시에는 인간이 겪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운명과 존재론적 갈등이 육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영혼과 육체를 자칫 선과 악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행복한 합일이지 영혼 또는 육체 그 하나에 함몰되거나 탐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혼과 육체의 합일을 갈망하는 자아의 끊임없는 갈등이 교차되는 지점에 <碧毛의 猫>가 지닌 현재적 의미가 있다.

2. <烏瞰圖 - 詩第十五號> - 현실과 꿈의 공격적 해체와 그 파괴적 치유

이상의 <烏瞰圖> 시편 중 <詩第十五號>는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인간의 정신을 포착하여 자아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심층적으로 표출된 문제작이다.

1

나는거울엿는室內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나는至今거울속의 나를무서워하며떨고있다.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떠케하라는陰謀를하는中일가.

2

罪를품고식은寢床에서자다. 確實한내꿈에나는缺席하얏고義足を담은軍用長靴가내꿈의白紙를더럽혀노앗다.

3

나는거울잇는室內로물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鬱한얼굴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囹圄되여잇듯키그도나때문에囹圄되여떨고있다.

4

내가缺憾한나의꿈. 내偽造가登場하지안는내거울. 無能이라도조혼나의孤獨의渴望者다. 나는드미여거울속의나에게自殺을勸誘하기로決心하얏다. 나는그에게視野도엿는들窓을가르치엇다. 그들窓은自殺만을爲한들窓이다. 그러나내가自殺하지아니하면그가自殺할수엿슴을그는내게가르친다. 거울속의나는不死鳥에갓잡다.

5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견우어拳銃을發射하얏다. 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貫通하얏스나그의心臟은바른편에있다.

6

模型心臟에서붉은잉크가엿줄러것다. 내가遲刻한내꿈에서나는極刑을바닷다. 내꿈을支配하는者는내가아니다. 握手할수조차엿는두사람을封鎖한巨大한罪가있다.

<烏瞰圖 - 詩第十五號> 전문¹⁹⁾

이상의 시 <거울>에서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가 거울을 매개로 하

19) 『조선중앙일보』, 1934.8.8.

여 접촉하면서도 부재하는 자아가 형상화되었다면, 이 시에서는 거울을 매개로 하여 현실의 자아와 꿈속의 자아를 대치시켜 상호 공격하고 후퇴하는가 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전투적 상황이 표출되어 있다. 시적 자아가 일련의 모순과 파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이러니에 의해 접근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적 자아를 지배하는 것은 현실의 자아도 꿈속의 자아도 아니다. 두 자아는 서로 꿀을 수 없이 상호 구속되면서 파괴되는 만남을 갖고 생사를 구분하기 힘든 분열과 불안의 고통으로 치닫게 된다.

일반적으로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간의 소망 표현으로, 원시적 사고의 표상이다. 인간은 현실의 소망과 타계책이 꿈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몽에서는 벗어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베갯모가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려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꿈의 수용과 방어의 공동체적인 상징성으로 음미될 수 있다.²⁰⁾ 그런데 <詩第十五號>에서 시적 자아는 자신을 공격하고 파괴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악몽과 싸우고 있다.²¹⁾ 악몽은 현대인의 심리적인 강박 관념 또는 사회적인 병리의 상징으로서 흔히 원용되어 왔다. 꿈속의 자아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공격적으로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시적 자아의 악몽은 탈출의 慾動性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내꿈을지배하는자는내가아니다.”라는 단언은 시적 자아의 불안과 절망, 분열의 양상들이 치유될 수 없는 공격적인 파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아는 꿈속의 비정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혼란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도하는 또 하나의 모순. 악수조차 할 수 없이 봉쇄되고 만 두 자아의 참상이 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시적 자아는 죄의식의 상태에

20)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120쪽.

21) 이 시에서의 꿈은 발현몽의 형태로 나타난다. 발현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합리성, 논리성, 일관성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공격이나 폭력은 성적인 열정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쾌락이 고통과 더불어 나타나며, 매력과 극도의 불쾌감이 공존하고, 공포감과 매혹, 비난과 인정이 뒤범벅이 되어 나타난다. <詩第十五號>에는 압축과 전치라는 꿈의 기제들에 의해 자아의 불안과 공포가 왜곡되어 표출되어 있다 : Leon Altman *The Dream in Psychoanalysis*, 『성·꿈·정신분석』(유범희 역), 민음사, 1995, 13-47쪽 참조.

머물러 있지 않다. 자신의 분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 권총 자살이라는 극도의 공격적인 파괴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파괴와 이를 치유하기 위한 꿈속으로의 도주는 계속 되풀이된다. ‘나’를 지배하지 않는 ‘나’와 합치되기 위하여 ‘나’를 파괴하는 아이러니——이를 통하면 나의 불안과 자기 혐오와 정신 분열의 증상은 사라질 것인가? 참으로 절망적인 실존적 상황이 아이러니컬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시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불안은 실존적 문제의 쟁점이 된다. 불안은 단지 특수한 위협이나 위해와 관련된, 상황적으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 겪게 되는 어떤 일반화된 감정 상태이다. 그래서 불안은 공포와 구분된다. 공포가 특수한 위협에 대한 반응이며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은 인간이 위협의 원천에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한 심리적 기능적 조건으로, 그 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행동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마비시키는 경향이 있다.²²⁾ 이상의 시에는 무의식 깊이 불안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아이러니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 문제는 키에르케고르가 불안 또는 원초적 전율을 “비존재에 대항한 존재의 투쟁”²³⁾이라고 분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실존의 문제에 따라다니는 불안 증상들은 인간의 삶에 통제력을 박탈하고 존재론적 안전을 뒤흔드는 주요 쟁점이 된다.²⁴⁾

<詩第十五號>에는 자아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하여 자살을 처방하는 아이러니가 극도로 과학적이고 지적인 갈등의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거울 속

22) S. Freud,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Harmondsworth : Penguin, 1974, p.83 참조.

23) S. Kierkegaard, *The Concept of Dread*, London : Macmillan, 1944, p.99.

24) 한국의 경우 실제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 자료를 보면, 1960년대 ‘정신분열병’으로 지칭된 환자의 평생有病率이 전체 인구의 약 0.2%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2001년도의 통계 조사에서는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이 약 14.5%로 집계되었다. 정신질환의 주요 항목을 보면 불안 장애(강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특정 공포증, 범 불안장애)가 8.8%, 우울성 장애가 4.6%, 정신분열 장애가 1.1%로 나와 있다. 이러한 통계는 21세기 정신병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인 장애 또는 강박 관념을 겪으며 사회적 병리의 상징으로 투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2001, 1-260쪽 참조.

의 나에게 자살을 권유하고 자신의 심장을 방탄금속으로 얽매하는 자아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죽음에의 충동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체는 파괴를 통하여 분열의 증상을 회복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현실에서는 무능하고 고독할지라도 그는 참다운 자아로 하나되기를 원한다. 나는 현실에 있지만 꿈속에도 있고, 현실에 없으면서 꿈속에도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이 작품이 단순히 '이드'의 꿈이라고만 할 수 없고 '자아'의 꿈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초자아'의 꿈이라고만 할 수 없는 단면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거울 속의 자아를 징벌하는 것이나 자아가 죄의식에 압도당하는 꿈 모티프가 이드와 자아, 초자아의 존재를 왜곡시켜 증명²⁵⁾해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시에는 꿈 모티프를 통하여 인간 정신의 복잡 미묘한 활동 과정의 단면이 지극히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꿈은 아름답거나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 참된 자아를 붙잡기 위해 모순된 모험을 감행하는 심오한 경지이다. 그러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적 자아의 형이상학적 탐색은 허위의 상태인 미해결의 진행형으로 끝나고 만다. 이에 끊임없이 의문이 생성되고 다시 탐색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보들레르는 그의 산문시 <이 세상 밖이라면 어디든지>에서 시적 자아가 부재하는 곳이라면 이 세상 밖 어디든지 가겠다고 끊임없이 그의 영혼과 다투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노래하였다. 바슐라르는 미친 몽상이 삶을 이끌어간다²⁶⁾고 하였다. 이상의 <詩第十五號>는 부재하는 자아들의 상호 파괴하는 투쟁이 변형과 왜곡을 통해 정신의 힘으로 작용하는 치열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원천은 무엇인가? 부재하는 자아 또는 영혼과의 투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적으로 해체하고 그 파괴를 통하여 자신을 치유하려는 절박하고 미친 꿈이 우리의 삶을 진정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詩第十五號>는 자아정체성이 분열되고 갈등하며 파괴되는 아이러니를 통하여 인간 실존의 한 단면과 심층을 탐구하고 해명해 나아가려는 진지함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25) Leon Altman, 앞의 책, 45쪽 참조.

26) G.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김 현 역), 기린원, 1989, 192쪽.

Ⅲ. 자아정체성의 회복과 세계와의 대항

1. <나비와 廣場> - 焦土의 醇化를 갈망하는 나비의 비상

김규동의 <나비와 廣場>은 ‘나비’와 ‘광장’이라는 자아의 세계 인식과 시적 대응이 매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50년대 전후 현실과 비극적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던 활주로인 광장에 나비를 연결시켜 매우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시적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있다.

眩氣症나는 滑走路의 / 最後의 絶頂에서 흰 나비는 / 突進의 方向을 잊어 버리고 / 피문은 肉體의 破片들을 굶어 본다.

機械처럼 灼熱한 작은 心臟을 추길 / 한목음 샘물도 없는 虛妄한 廣場에서 / 어린 나비의 眼膜을 遮斷하는건 / 透明한 光線의 바다뿐이었기에—

眞空의 海岸에서 처럼 寡默한 墓地 사이 사이

숨가쁜 Z機의 白線과 移動하는 季節속— / 불길처럼 일어나는 磷光의 潮水에 밀려 / 이제 흰 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다거린다.

하—얀 未來의 어느 地點에 / 아름다운 領土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 푸르른 滑走路의 어느 地標에 / 華麗한 希望은 피고 있는 것일까.

神도 奇蹟도 이미 / 昇天하여 버린지 오랜 流域— / 그 어느 마지막 終點을 向하여 흰 나비는 / 또한번 스스로의 神話와 더부러 對決하여 본다.

<나비와 廣場> 전문²⁷⁾

<나비와 廣場>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비정한 공간인 광장 위에 영혼의 무게로 지탱하며 실존의 고통을 짊어진 채 비상하고 있는 나비가 상징적으로 조율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이 시적 공감보다는 메커니즘화

27) 김규동, 『나비와 광장』, 산호장, 1955.

된 관념의 지적 조작을 느끼게 하는 실험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²⁸⁾ 그러나 이 작품은 실존주의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전후 메커니즘적 상황에서 초토의 순화를 갈망하는 시인의 시의식이 치열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흰 나비’는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절정인 광장 위를 날고 있다.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위에 떠 있는 나비는 너무나 생경한 이미지이면서도 1950년대 전후 한국의 한 단면과 인간상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나비의 심장은 기계처럼 작열하고 있지만 그 심장을 축일 샘물 한 방울 없는 허망한 공간에 떠 있다. 이때 나비의 안막에는 제트기의 폭음과 백색만이 가득하고 전쟁의 불길은 마치 바다의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고 있다. ‘푸르른 활주로’가 ‘진공의 해안’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광장이 바다로 동일시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신도 기적도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인 비극의 땅에, 스스로의 신화를 만들어 광장의 세계와 대결하여 극복해 보려는 나비의 집념이 치열하면서도 절실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전쟁터에 깔려 있는 두개골들은 삶 속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전쟁터에 흩어져 있는 죽음의 상징물인 시체들은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극명한 상징물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이 현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능성,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운데 진정한 삶을 하나의 선택이게 하는 가능성²⁹⁾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직면한 인간이 그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의 시간적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죽음과 삶의 경계마저 모호한 전쟁터의 불길 한가운데 놓인 나비는 그 상황만으로 인간의 유한성과 진정한 삶을 열망하게 하는 아이러니컬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나비는 실존의 무게를 짐 지지 못하고 하늘로 날아가고픈 영혼이며 새로운 신화적 세계를 꿈꾸는 영혼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광장의 이미지는 현대 사회의 비극적 성격을 예감해서 보여주며, 나비의 이미지는 공포의 전쟁터로 추락하는 불안한 실존의 모습으로 그려져

28) 최동호, 『1950년대의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의』, 『한국현대문학사』(김윤식 외), 현대문학, 2002, 320쪽.

29) M. Heidegger, *Being and Time*, Oxford : Blackwell, 1962, pp.143-145 참조.

있다. 세상에 던져진 인간 존재의 단면이 묘파되어 있는 것이다. 전쟁터에 날아가는 제트기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운명의 상징성을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준다. 제트기가 내뿜는 속도감은 현대 문명의 한 단면을 제시하며 현대 문명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제트기가 빠른 속도로 비상하는 것은 하늘을 날고 싶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히 아름다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러나 제트기가 백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속도감은 현대 문명의 불안한 속도를 예감하게 해준다. 그리고 활주로를 푸르게 인식하고 그곳에 ‘화려한 희망’을 심어보는 나비의 무모한 행동은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활주로에 희망을 심는 행동은 의미 없는 환상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비는 현기증을 견디면서 시체가 가득찬 활주로를 향해 날아간다. 여기서 시적 자아의 행동성을 ‘스스로의 신화’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현실적 사회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시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와 같은 세계와 대결해보려는 나비의 정신적인 힘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시는 사회 또는 현실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표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비’와 ‘광장’의 대응은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상황과 인간상의 단면을 적절하게 표상한 새로운 이미지이다. 이 나비가 갈구하는 것은 광장으로 표상된 이 세계의 고통과 불안과 절망을 붙들고 날아보려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몸짓이지만 불모의 지평과 뜨겁게 부딪쳐 비상하려는 의지이다. 그래서 나비는 영혼으로 승천하지 못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조감하며 떠 있다. <나비와 廣場>에서 나비는 현실 세계의 부조리와 절망적 모순에 대응하는 존재이다. 광장은 현대 문명의 조류를 표상하는 단면이다. 이처럼 난폭하고 잔인하며 냉혹한 세계와 맞서 실존적 투쟁을 벌이는 나비의 비상은 현대인의 비극적 초상을 담고 있어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

2. <거대한 뿌리> - 사랑의 힘으로 ‘거대한 뿌리’를 박는 정신의 가벼움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는 한국의 역사와 민족 현실에 대한 자아의 세계 인식과 대항의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거대한 뿌리’로 상징되는 한국의 역사는 화자에게 ‘뿔주발보다도 더 쟁쟁 울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설정

되어 있다. “나는 아직도 앓는 법을 모른다”라는 아이러니로 시작하고 있는 이 시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영국 등의 외세들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거대한 뿌리’를 이 땅에 박으려는 반동의 외침과 몸짓을 보여준다.

나는 이사벨 버드 비숍女史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 一八九三年에 조선
을 처음 방문한 英國王立地學協會會員이다 /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면
장안의 /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 화하는 劇
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 남자로서 거리를 無斷通行할 수
있는 것은 교군꾼, / 내시, 外國人의 종놈, 官吏들 뿐이었다 그리고 / 深夜
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 闊步하고 나선다고 이런
奇異한 慣習을 가진 나라를 / 세계 다른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 天下
를 호령한 閔妃는 한번도 장안 外出을 하지 못했다고……

傳統은 아무리 더러운 傳統이라도 좋다 나는 光化門 / 네거리에서 시구
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寅煥네 / 처갓집 옆의 지금은 埋立한 개울에서 아낙
네들이 / 양젖물 솔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 버드 비숍女史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歷史는 아무리 / 더러운 歷史라
도 좋다 /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 나에게 늦주발보다도
더 쟁쟁 울리는 道徳이 / 있는 한 人間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비숍女史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進歩主義者와 / 社會主義者는 네
에미 썩이다 統一도 中立도 개썩이다 / 隱密도 深奧도 學究도 體面도 因習
도 治安局 / 으로 가라 東洋拓殖會社, 日本領事館, 大韓民國官吏, /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좃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 요강, 망건, 장죽, 種苗商, 장전, 구
리개 약방, 신진, /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無識쟁이, / 이 모
든 無數한 反動이 좋다 /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 一 第三人道橋의
물 속에 박은 鐵筋기둥도 내가 내 땅에 /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
레의 솜털 /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거대한 뿌리> 2~4연³⁰⁾

이 시에서 “이사벨 버드 비숍여사”³¹⁾와 연애하고 있다는 것은 비숍 여사가

30) 김수영, 『김수영 전집 I』, 민음사, 1981(이 작품은 1964년 2월 3일 창작되었음).

31) 이사벨 버드 비숍은 영국 왕립지학협회 회원으로 1894년 한국을 방문하고 1898

써놓은 한국의 풍속도를 읽고 있는 화자를 표현한 것이다. 영국인 비숍 여사의 눈에 조선은 천하를 호령하던 민비가 장안 구경 한번 못하고 정치를 하던 신기한 나라이다.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처럼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비숍 여사의 진술에 시적 자아는 한국의 당대 현실을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라는 아이러니를 통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한국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감싸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진창에서 빨래하던 우울한 시절을 파라다이스로 생각하고 추억으로 인식하며 그 힘으로 인간과 사랑에 대한 영원한 힘을 견지하게 된다. 시적 자아는 진보주의, 사회주의, 통일, 중립 등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한국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제 강점과 문화적 침탈 현상, 그 영향 아래 행해졌던 한국의 정치적 상황까지도 거부한다. 그리고 “은밀, 심오, 학구, 체면, 인습” 등에 사로잡혀 있던 당대 주류인 지식인들까지도 강력하게 거부하는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이 시에서의 작품의 의미를 미제국주의에 빌붙어 사는 비주체적 인간들에 대한 풍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³²⁾ 이 시를 풍자로 풀어내면 그 상징적 의미가 축소된다. 풍자는 일반적으로 조소, 비난, 공격을 내포하며 도덕적 판단을 바탕으로 인간이나 사회의 결함, 불합리를 적발하고 교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가 작가의 의도를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독자들이 상반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두는 데 비해 풍자는 비판의 대상인 사회를 공격적으로 대처한다.³³⁾ <巨大한 뿌리>에서 시적 자아는 토착 전통의 쟁쟁한 추억을 힘으로 삼아 낙후한 한국의 현실과 부조리를 파라다이스로 환원하려는 반동의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화자는 지나간 추억의 한 자리에 놓여 있던 전통의 산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전통 사회에서 소외되어 천대받던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들을 이 땅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데 중추적인 시민들로 인식한다. “이 무수한 반동이 좋다”라는 아이러니는 인간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다.

년 『Korea And Her Neighbours』라는 한국 방문기를 출판했다.

32) 김경복, 『반예술과 패러디』,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김준우 편), 현대미술사, 1996, 113쪽.

33) 정한모, 앞의 책, 110쪽.

화자의 눈에 비친 사회 현실은 부정적인 색채를 진하게 띠고 있지만 여기에 패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무당하고 폐허화된 역사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싸우면서 거대한 뿌리를 박으려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 시꺼먼 뿌리를 내리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전환, 반동의 아이러니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한 자아가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전통은 유일한 규범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외적 기준 또는 신분 등의 선형적 결정이 사라지고 생활이 다원화되면서 계몽주의적 이성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되었다. 탈전통적 질서 속에 삶을 영위하면서 자아정체성의 문제는 더욱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³⁴⁾ 김수영의 <巨大한 뿌리>는 탈전통적인 질서가 지배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196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무수한 반동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뿌리를 내리겠다는 시적 자아의 대결은 오히려 ‘가벼움’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가벼움’이란 인생의 무거운 진지성에 압도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정함을 유지하려는 시적 자아의 태도이자 자유로워지려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 가벼움은 인생의 무거운 진지성을 느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압도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정신력을 뜻한다. 아이러니는 무수한 대립적 요소를 인식하고 그 모순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주관적 측면과, 이러한 갈등과 충돌의 문제에 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 측면을 결합시켜 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작품의 다의성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기능을 한다.³⁵⁾

전통이 아무리 병들었어도 이것을 극복할 힘은 바로 그 전통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더러운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뛰어넘는 힘도 바로 그 더러운 역사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 더러운 전통과 역사, 진창과 함께 뒹굴면서 ‘거대한 뿌리’를 박겠다는 시인의 의지는 무거운 진지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영원성을 믿는 정신력의 표상이다. <巨大한 뿌리>에

34) A. Giddens, 앞의 책, 18-20쪽 참조.

35) D. C. Muecke, 앞의 책, 60-61쪽 참조.

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거대한 뿌리’를 박으려는 시적 자아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긴장력은 인생과 세계를 새롭게 전망하게 하는 통찰력을 제시해준다.

IV. 결론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차원에서 그 삶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불연속적 생활방식, 극한적 역동성, 질주하듯 빠른 사회 변동 등으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실천과 행동 양식에 있어서 오히려 소의를 경험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아이러니는 인간의 실존을 둘러싸고 있는 현대 문명의 혼란과 현실 상황의 불안 의식을 극한적으로 상징화하여 표출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이 된다. 특히 21세기에 오면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은 엇갈리는 모순성과 냉혹한 對極性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모순 충돌하는 시적 자아의 내면 의식과 체험을 아이러니의 방법론으로 풀어보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투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인생과 세계의 본질을 천착하고 성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러니의 방법론을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닌 시적 자아의 내면 분석의 기재로 설정하여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거점인 자아정체성의 관점에서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의 주요 현대시를 상상력의 확장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해석해보았다.

자아 동일성의 상실과 무의식의 탐색의 장에서는 황석우의 <碧毛의 猫>를 “靈肉의 상호 일탈과 합일예의 갈등”으로, 이상의 <鳥瞰圖 - 詩第十五號>를 “현실과 꿈의 공격적 해체와 그 파괴적 치유”의 양상으로 분석하였다. 자아정체성의 회복과 세계와의 대항의 장에서는 김규동의 <나비와 廣場>을 “焦土의 醇化를 갈망하는 나비의 비상”으로,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를 “사랑의 힘으로 ‘거대한 뿌리’를 박는 정신의 가벼움”의 양상으로 해석하였다.

바닥을 모르는 심연, 기슭을 알 수 없는 피안, 그 어딘가에 던져진 것이 인간

이라면, 어딘지 알 수 없는 한복판에서 헤엄치고 있는 인간의 상황이 바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자유를 갈구하면서도 늘 불안을 느끼는 인간의 상황을 직접적 모티프로 삼았다. 실존적 모순의 상황 속에서 세계와 대면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와 이에 대한 탐구가 현대시에 있어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의 심층 구조를 따라 자아정체성을 해명해보려는 본 연구가 문학의 정신사적 측면에서 인간존재론 등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는 데 부응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아이러니, 시적 내면의 심층화, 상상력의 확장, 자아정체성, 세계 인식, 시적 탐색, 소외, 실존적 상황

참고문헌

- 강우식, 『한국상징주의시연구』, 문화생활사, 1987, 72쪽.
-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2001, 1-260쪽.
- 권영민 편저,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 김경복, 『반예술과 패러디』,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김준오 편), 현대미학사, 1996, 113쪽.
- 김규동, 『나비와 廣場』, 산호장. 1955.
-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 김수영론』, 민음사, 2000.
- 김수영, 『김수영 전집 I』, 민음사, 1981.
- 김용직, 『현대시원론』, 학연사, 1988.
- 김열규 외, 『정신분석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2.
- 김영철, 『현대시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 김재홍·정한모, 『한국 대표시 평설』, 문학세계사, 1988.
- 김준오, 『시론』, 이우, 1988.
- 김학동, 『한국 근대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조각, 1981, 107쪽.
- 김학동 외, 『현대시론』, 새문사, 1997.
-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72.
- 신오현, 『자아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87, 123-145쪽.
- 유종호 외, 『현대 한국문학 100년』, 민음사, 1999.
-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79.
- 이어령, 『시 다시 읽기』, 문학사상사, 1995.
-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120쪽.
- 정한모,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85, 110쪽.
- 『조선중앙일보』, 1934.8.8.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5.
- 조지훈, 『한국현대시사의 관점』, 『조지훈전집3』, 일지사, 1973.
- 최동호, 『1950년대의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의』, 『한국현대문학사』(김윤식

- 외), 현대문학, 2002.
- 『폐허』~장간호, 1920.7.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4, 57-62쪽, 609쪽.
-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1.
- Altman, Leon, *The Dream in Psychoanalysis*, 『성·꿈·정신분석』(유범희 역), 민음사, 1995, 13-47쪽.
- 바슐라르, G., 『몽상의 시학』(김 현 역), 기린원, 1989, 192쪽.
- 보들레르, C. P., 『보들레르의 명시』(김기봉 역편), 세계출판사, 1988.
- Booth, W. C., *A Rhetoric of Irony*, Chicago University Press, 1974.
- Brooks, C., *The Well Wrought Urn*, London : Dennis Dobson, 1968.
- Brooks, C. and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 Cirlot, J. E., *A Dictionary of Symbol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1, p.39.
- Culler, Jonathan, "Rhetoric, Poetics, Poetry", *Literary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81-82.
- Freud, S.,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Harmondsworth : Penguin, 1974, p.83.
- Frye, N., *Anatomy of Criticism*,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2, 61쪽.
-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현대성과 자아정체성』(권기돈 역), 새물결, 1997, 18-20쪽, 48쪽.
- Heidegger, M., *Being and Time*, Oxford : Blackwell, 1962, pp.143-145.
- Kierkegaard, S., *The Concept of Dread*, London : Macmillan, 1944, p.99.
- Muecke, D. C., Irony, 『아이러니』(문상득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44-80쪽.

Preminger, A. and T. V. F. Brogan, *The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ichards, I. A.,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55, pp.249-251.

Sartre, J. P., *L'être et le néant*, Paris : Gallimard, 1943.

Schacht, Richard, *Alienation*,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Books, 1971,
p. x l v i .

Wheeler, C. B., *The Design of Poetry*, New York : W. W. Norton, 1966,
pp.94-96.

<Abstract>

A Study on the Ironical Intensification in Poetic Inner Thoughts of Korean Contemporary Poetry

Kim, Ji-Yeon

The poetry has the power to leverage its literary meaning of the reality with the imagination. The literary meaning of the poetry can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in different ways so that it contains a variety of meanings, especially when the meaning is exaggerated intentionally. Under this assumption, I have tried to re-interpret and analyze in depth poetries further based on the methodology of the irony. The study has approached self-identity, under the assumption that it is likely to be same as the reason of the being, to understand the inner thoughts of the identity. This study has interpreted and evaluated the works based on the loss of self-identity, investigation of the unconsciousness, and recovery of self-identity as well as its opposition.

In a chapter of how to understand the loss of the self-identity and investigation of the unconsciousness, I used two poets <A cat with blue fur> by Seok-woo, Hwang and <A picture in the eye of a crow - The 15th> by Sang, Lee. With <A cat with blue fur>, I analyzed the poet in a way of the exodus of the body and the conflict of the consensus. With <A picture in the eye of a crow - The 15th>, I analyzed the poet in a way of the aggressive dissolution between the reality and the dream and the aspect of how to deal with the destructive remedy. In a chapter of how to understand recovery of self-identity and its opposition, I used two poets - <A butterfly and a Square> by Gyu-dong, Kim and <Enormous Roots> by

Soo-young, Kim. With <A butterfly and a Square>, I analyzed the poet to a butterfly who aspires to fly. With <Enormous Roots>, I interpreted it to the status of lightness that roots it with the love.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re-interpreting and re-valuating Korean contemporary poetry based on the methodology of the irony.

Key Words : irony, intensification in poetic inner thoughts, extension of the imagination, self-identity,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e poetic inspiration, alienation, the state of existence